

“전국 제패” 제주시청 소프트테니스팀 창단

여동필 감독 채종현·김연제 선수 2명 체제 출범
제주 개최 전국체육대회 등 메달 획득 도움 기대

제주시가 수영과 육상에 이어 세 번째 직장운동경기부인 소프트테니스팀을 창단하고 전국 제패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제주시는 13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김완근 제주시장과 최기창 제주시체육회장, 송기택 제주도소프트테니스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프트테니스팀 창단식을 개최했다.

제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프트테니스팀은 여동필 감독을 필두로 채종현·김연제 선수 2명으로 구성됐고, 전국대회 상위 입상을 목

표로 지역 스포츠 저변 확대와 학교 운동부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에 힘을 계획이다.

여동필 감독은 전국소년체전 메달리스트 출신으로 아라초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다 이번에 제주시청팀을 맡게 됐다.

채종현은 순천대를 졸업하고 전국 대통령기대회 단체전과 동아일보기 단식 2위에 오른 강자다.

대전대를 졸업한 김연제는 제105회 전국체전 1위, 지난해 대한연맹전 단식 3위에 오른 바 있어 올해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메달



왼쪽부터 최기창 제주시체육회장, 여동필 감독, 김완근 제주시장, 채종현·김연제, 제주시청 제공

획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올해 제주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만큼 선수들

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제주SK 삼일절 광주FC와 개막전 격돌

K리그1 2026 일정 발표
양팀 나란히 신임 감독
시즌 첫승 주인공 관심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제주SK FC가 광주FC와의 경기로 2026시즌 포문을 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6시즌 K리그1 정규 리그 1라운드부터 33라운드까지 일정을 13일 발표했다.

2026시즌 K리그1에는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를 비롯해 승격팀 인천과 부천FC 등 12개 팀이 참가한다. 정규 라운드는 팀당 33경기씩 총 198경기가 열린다.

K리그1 시즌 공식 개막전은 2월 28일 오후 2시 인천 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서울의 경기다.

제주는 삼일절인 3월 1일 오후 4시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광주FC와 맞붙는다. ‘주도하고 압도하는 축구’를 선언한 코스타 감독이 신임 광주 이정규 감독을 상대로 시즌 첫 승이자 홈 첫승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는 지난해 2월 FC서울과의 시즌 개막전에서 신입생인 김준하와 이건희의 연속골로 2-0 승리를 거두며 기분 좋게 출발한 바 있다.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 제주SK FC제공

제주는 지난해 2경기 연속 홈경기를 치렀지만 올해는 3월 8일 2라운드 안양과의 원정경기가 잡혔다.

특히 9월부터 제주에서 전국장에 인체전과 전국체육대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9월 5일 27라운드 울산과의 홈경기 이후 33라운드까지 6경기 연속으로 원정경기 일정으로 채워질 올 시즌 파이널라운드 진출의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리그 일정은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E, ACL2) 참가팀 일정에 따라 조정되거나 순연될 수 있다.

K리그1 정규 라운드 33라운드가 끝난 후엔 파이널 라운드가 시작된다. 파이널 라운드는 34라운드부터 최종 38라운드까지 팀별로 5경기씩 치르게 되며, 경기 일정은 정규 라운드를 모두 치른 후에 공개된다.

위영석기자



‘챔피언’ 잡아낸 ‘승격팀’의 파란 프랑스 프로축구 승격팀 파리FC(왼쪽)는 13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5-2026 쿠프 드 프랑스 32강전 원정경기에서 후반 29분 조나단 이코네가 결승 골을 터뜨려 PSG(오른쪽)에 1-0으로 이겼다. 이로써 이 대회 ‘디펜딩 챔피언’이자 최다 우승팀(16회)인 PSG는 16강에도 오르지 못하고 탈락하는 수모를 안았다. 연합뉴스



레알 마드리드, 사비 알론소 감독과 결별

후임에 아르벨로아 감독 선임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 레알 마드리드가 부임한 지 8개월도 채 안 된 사비 알론소(44) 감독과 결별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13일(한국시간) “알론소 감독과 상호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후임으로는 스페인 국가대표 수비수를 지낸 알바로 아르벨로아 레

알 마드리드 2군(카스티야) 감독이 선임됐다.

알론소 감독은 지난해 여름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의 후임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2028년 6월까지 3년 계약했으나 반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레알 마드리드는 알론소 감독이 지휘한 공식전 34경기에서 24승 4무 6패를 기록했다. 스페인 정규리그인 라리가에서는 현재 승점 45(14승3

무2패)로, 맞수 바르셀로나(승점 49)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셀타 비고와의 라리가 홈 경기에서 충격적인 0-2 완패를 당한 데 이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에 1-2로 역전패하는 등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알론소 감독의 입지는 불안해졌다.

결국 12일 열린 스페인 슈퍼컵 결승에서 바르셀로나에 2-3으로 패하자 구단은 더는 기다려주지를 않았다.

연합뉴스



알바로 아르벨로아 신임 레알 감독, 연합뉴스

한국공항 장애인선수단 역도 2명 영입

신인 한다경·고민협 환영식

장애인선수단을 운영하는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이 역도선수 2명을 추가 채용했다.

한국공항은 지난 12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소재 사무실에서 역도 종목 한다경(30)·고민협(27) 등 2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입사 환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다경과 고민협 모두 지난해 장애인역도에 입문한 신인 선수들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역도연맹의 추천을 받아 채용이 이뤄졌다.

한국공항은 지역상생차원에서 2022년 4명으로 장애인선수단을 구성했고 현재 10명이 활약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장애인 선수의 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만간 5명을



장애인 역도 종목 한다경 고민협 환영식.

추가로 채용, 선수단 규모를 15명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공항은 채용된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고용 환경과 급여를 보장하고 전문 트레이너의 정기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김현욱 한국공항 상무는 “더 많은 도내 운동선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진

축

금

무적해병 준장

현 우 식
부 : 현창돈(주)삼화여객 전무이사
모 :故 서한욱, 박영순

해병 준장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식회사 삼화여객
대표이사 강영철 외 임직원 일동

진

축

금

해병대 준장

현 우 식(31世 거로파)
(父 : 현창돈 차남)

해병대 준장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연주현씨제주도친족회
회장 현영화 외 친족 일동

진

축

금

해병 준장

현 우 식
(父 : 현창돈 차남)

해병 준장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연주현씨승적공파친족회
회장 현영호 외 친족 일동

진

축

금

해병 준장

현 우 식
부 : 현창돈(주)삼화여객 전무이사
모 :故 서한욱, 박영순

해병 준장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연주현씨성범공파친족회
회장 현희철 외 친족 일동